

모든 업무 컴퓨터로 일괄처리, 효율화에 성공 경영의 밑거름은 종사원들 중심에서

권태문 / (주)팔기 사장



▲ 권태문 (주)팔기 사장

1979년 설립된 팔기는 식품용기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84년 재창립을 선언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플라스틱 일회용기에 대한 정부의 사용 규제 움직임이 커 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으며 지난해 업계는 일회용기의 타당성에 대해 행정쇄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책임한 정부의 행정집행으로 업계가 큰 불이익을 겪고 있는데 법집행자들의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권태문 사장은 외모에서부터 육군 대위로 전역한 군인출신다운 면모를 보였다.

권 사장은 설립당시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면서 외국을 자주 다니다 국내 식품산업이 미개척분야

로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포장업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한다. 또 ‘팔기’라는 특이한 회사명에 대해 묻자 ‘한자로 팔자는 무한대로 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라비아 숫자로는 오뚜기라는 의미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상 합리적이고 근로자를 고려한 경영을 펼치고자 연구하는 권 사장은 5~6년전부터 모든 업무를 컴퓨터시스템으로 바꾸었고 심지어 은행업무도 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있다. 팔기에는 순수행정만을 담당하는 직원은 없고 모두 생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영업도 상무와 사장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이 또하나의 특징이다.

또한 전일생산 내역을 매일 직접 컴퓨터로 확인

**지시보다는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스스로 일할 수 있게끔 하여 자기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게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그의 경영방식이다.**

하고 있는 권사장은 업무에서의 비효율적인 면을 줄이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종업원들에 대한 남다른 배려도 아끼지 않고 있다.

“창립당시 직원의 90%가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원부터 시작하여 계장, 과장, 부장을 지내고 현재 상무로 있는 직원이 있어 직원들도 그러한 케이스를 보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권 사장은 밝힌다.

그의 경영방식은 지시보다는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스스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며 자기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만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일년동안 결근을 하지않은 직원에게는 금반지를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용인공장에서 한국야쿠르트와 IG의 PE용기·PSP용기를 생산하고 있는 (주)팔기는 항상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직한 기업정신과 성실한 자세 그리고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는 자세를 중요시하는 기업이다.

권 사장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열성형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앞으로 회원사들과 협력하여 업계를 위해 분과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짧은 포부를 밝혔다.

“작년 독일 전시회에 참관했다가 그 나라의 재 활용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나라의 행정집행자들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경우와는 근본

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달리 플라스틱을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폐기된 플라스틱도 자원으로 여기고 그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권 사장은 우리나라의 모순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사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중소기업인상을 읽을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며 “올 5월쯤 소량다품종, 다목적기계형 새로운 기계를 들여와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올해 계획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봉사단체인 로타리회의 지역대표와 플라스틱 재활용협회 이사로 활동중이기도 한 권 사장은 항상 동종업계에서 선도가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됨을 재삼 강조했다.

고속성장과 대폭성장 방식의 회사운영을 펼치는 회사 등 기업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팔기는 착실하게 내실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꾸준한 성장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다. **KO**

이선하기자